

※ 三陰三陽의 기본 개념

하늘에 해와 달(日月)이 있어 寒暑의 변화가 생기고, 寒暑의 변화가 움직임으로써 陰陽이 생긴다. 그러므로 陰陽이 생성되는 근본은 하늘의 해와 달에 있다. 日月의 운동에 의하여 寒暑가 생기는 기후의 변화는 곧 陰陽의 작용으로 땅에 있는 만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낮을 陽이 되고 밤을 陰이 되므로 陰은 寒하여 水에 속하고 陽은 熱하여 火에 속하게 되어 天地사이에 水火의 작용이 나타나는 이유가 된다. 1년의 기후를 寒熱[寒暑]과 陰陽으로 나누면 봄과 여름은 熱하여 陽에 속하고, 가을과 겨울은 寒하여 陰에 속한다. 그런데 陰陽에도 大中小이 있어 陰을 三陰으로 나누고 陽을 三陽으로 나누어 三陰三陽을 제정한 것이다.

◆ 三陰三陽의 표리 관계 (風 寒 君火 相火 濕 燥, 天의 六氣는 “本”)

表(標)	裏(中氣)	
太陽寒水	少陰君火	寒熱(水火)관계
少陽相火	厥陰風木	風火관계
陽明燥金	太陰濕土	燥濕(dry 와 wet)관계

◆ 標本中氣論

- 1) 標本中氣의 概念 : 自然界的 六氣와 人體의 三陰三陽 間의 氣化生理와 病理變化의 規律.
陰陽의 進退는 三陰三陽으로 표현되고 현상으로 인식되는 하나의 表象(標)이며,
六氣는 현상발현의 本元(本)이 된다. 이렇게 三陰三陽과 六氣는 標本관계를 이룬다.
- ① 本 : 風寒暑濕燥火
原·始의 뜻으로 天의 六氣로 天真六氣가 化生된 것이므로 六元이라 한다.
자연계 氣候變化의 根源으로 인체에 직접 영향을 준다.
- ② 標 : 三陰三陽
標識·符號·末·現象의 의미로 六氣에 의해 발생한 氣候變化에 根據하여 나타난
生長化收藏의 과정으로 六氣가 만들어낸 氣候와 物象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 ③ 中氣 : 三陰三陽의 表裏之氣 =>本之下, 標之上에 배속되어 中間에 위치함.
中之氣라고도 한다. 三陰三陽에는 각각 表裏가 있어 그 氣運이 相通하는 互根이 있는데, 三陰三陽(標)과 서로 表裏를 이루는 것이 中見之氣로 나타난다. 이는 陰陽 및 表裏 相通關係에 起因한 것으로 陰陽을 서로 짝지으며 氣化의 盛衰를 조절하고 生機不息하게 하는 樞機의 작용을 가진다. 中氣는 三陰三陽을 표시하는 別稱으로 대개 本氣와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風과 火), 相反되는 氣運(寒熱, 燥濕)이다.
(少陽之上 火氣治之 中見厥陰, 陽明之上 燥氣治之 中見太陰, 太陽之上 寒氣治之 中見少陰,
厥陰之上 風氣治之 中見少陽, 少陰之上 熱氣治之 中見太陽, 太陰之上 濕氣治之 中見陽明 所謂本也,
本之下 中之見也 見之下 氣之標也 本標不同 氣應異象.)
- ④ 標本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서로 轉化性이 있다. 『素問·標本病傳論』에는 “標本相移”라 하여 轉化性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病證의 發展變化過程을 파악하고 복잡한 病證을 辨證하는데 중요한 요점이 된다.
- ⑤ 標本の 從化性은 運氣學說과 관련이 있어 六氣變化의 理論 중에서 表出된 것이다.
『素問·至真要大論』에 “六氣標本, 所從不同”이라 하였는데 六氣의 太過不及이 원인이 되어 標本の 從化性을 형성한다.

2) 標本中氣의 從化規律 : 天之六氣와 人體 三陰三陽 사이의 氣化生理와 病理變化의 規律을 나타냄.

① 從本化 : 少陽相火, 太陰濕土

少陽相火는 本인 火와 標인 少陽이 모두 陽으로 標本이 同氣로서 從本化(少陽病은 火熱이 主)한다.

太陰濕土는 本은 濕, 標는 陰으로 標本이 同氣로 從本化(太陰病은 濕土가 主)이다.

② 從本化 또는 從標化 : 少陰君火, 太陽寒水

少陰君火는 本은 熱, 標는 陰이기 때문에 標本の 氣가 다르며 從本化하면 熱이고 從標化하면 寒이다.

太陽寒水는 本은 寒이고 標는 陽으로 標本の 氣가 다르고 從本化하면 寒이고 從標化하면 熱이다.

③ 從中氣化 : 陽明燥金, 厥陰風木

陽明燥金의 本은 燥이고 標는 陽으로 標本の 氣가 다르며 中氣인 太陰濕土가 從本化하므로 從濕化한다.

厥陰風木의 本은 風이고 標는 陰으로 標本の 氣가 다르며 中氣인 少陽相火는 從本化하므로 從火化한다.

◆ 三陰三陽의 뜻과 상호관계

六氣 (三陽三陰)	寸 서	氣血	陰陽 多少	形氣 관계	開闔樞	陰陽 進退(時間)	六氣와 관계	作用 및 性質	위치
寒(太陽寒水)	三陽	多血	陽多	陽老衰	開	陽極進	에너지소진(寒), 정지상태	堅 凝結, 收引, 易阻經絡	在下
燥(陽明燥金)	二陽	多氣多血	次少	陽壯成	闔	陽進前	에너지수축경향	乾 堅成的收縮 易傷津液, 傷肺	在上
火(少陽相火)	一陽	多氣	又少	陽初生	樞	陽初生	가속운동으로 熱을 發하여 火	溫 標化的熱作用 生風動血, 腫瘍	流行其間
濕(太陰濕土)	三陰	多氣	陰多	陰成熟	開	陰極進	陰成形으로 形化,	潤 成形的生化 重濁, 粘滯, 傷陽氣	中央
熱(少陰君火)	二陰	多氣	次少	陰始生	樞	陰微少	다시운동하려면 에너지발생	蒸 主動的熱作用	在上
風(厥陰風木)	一陰	多血	又少	陰衰盡	闔	陰已盡	에너지가 발생하면 動	動 動作的 善行而數變, 百病之長	在下

『五運行大論篇 第六十七』燥以乾之, 暑以蒸之, 風以動之, 濕以潤之, 寒以堅之, 火以溫之.

故風寒在下, 燥熱在上, 濕氣在中, 火遊行其間, 寒暑六入, 故令虛而化生也.

◆ 標本中氣論과 經脈 - 12 經脈 三陰三陽 臟腑 배속

陰陽	陰陽經	臟腑	標	本氣	本臟腑	經脈	中氣	中氣本臟	經絡
陰	三陰經	臟	厥陰	風	肝	足厥陰肝經	少陽相火	心包	手厥陰心包經
			少陰	熱	心	手少陰心經	太陽寒水	腎	足少陰腎經
			太陰	濕	脾	足太陰脾經	陽明燥金	肺	手太陰肺經
陽	三陽經	腑	少陽	火	三焦	手少陽三焦經	厥陰風木	膽	足少陽膽經
			陽明	燥	大腸	手陽明大腸經	太陰濕土	胃	足陽明胃經
			太陽	寒	膀胱	足太陽膀胱經	少陰君火	小腸	手太陽小腸經

♣ 十二經脈의 配合原則

- 三陰三陽의 “本氣”와 “中氣”를 從應한다.(ex. 本氣를 從 - 肝 心 脾 三焦 大腸 膀胱)
- 手足의 名稱은 臟을 기준으로 陰陽上下 部域에 따라 相應함. (예)肝은 下焦 즉 足經, 心은 上焦 즉 手經)
- 腑는 表裏關係를 따라 臟의 위치에 依해 相應함.
- 表裏와 本中の 關係로 三陰三陽의 五臟六腑 配屬範圍가 정해진다.

♣ 六氣相互間의 承制關係

- ① 經氣의 升降運動：三陽經은 下降, 三陰經은 上升 → 燥濕, 寒熱, 風火의 承制關係形成
ex) 厥陰風은 肝,心包經을 따라 上升한다. 少陰君火, 太陰濕土는 上升.
- ② 臟腑氣의 升降：氣의 上下運動時 本氣의 運動이 우선한다.
ex) 脾胃經：脾經을 통해 太陰濕이 상승하고 胃經을 통해 陽明燥가 下降, 그러나 脾가 本氣인 濕과 配하므로 전체적으로 脾經의 太陰濕을 통한 上升이 우세함
肺大腸經：肺經을 통해 太陰濕이 上升, 大腸經을 통해 陽明燥가 下降, 그러나 大腸經이 本氣인 燥와 配하였으므로 전체적으로 大腸經의 陽明燥를 통한 下降作用이 우세

※ 標：三陰三陽 本：六氣 (그러나 五行에 대하여는 標)
中：三陰三陽의 表裏관계에 의한 것
(從本：標와 本이 같을 때, 從本從標：標本이 다를 때)

※ 三陰三陽 암기표

- 風以(動)之 暑以(蒸)之 濕以(潤)之 火以(溫)之 燥以(乾)之 寒以(堅)之
- 風勝則地(動) 暑勝則地(熱) 濕勝則地(泥) 火勝則地(固) 燥勝則地(乾) 寒勝則地(裂)
- 風勝則(動) 熱勝則(腫) 濕勝則(濡泄) 甚則(水閉附腫) · 燥勝則(乾) 寒勝則(浮)

	厥陰風木	少陰君火	太陰濕土	少陽相火	陽明燥金	太陽寒水
음양	꺠	소	태	소	양	태
육기	풍	열(서)	습	화	조	한
형기	쇠 / 음쇠진	시 / 음시생	성 / 음성숙	초 / 양초생	장 / 양장성	노 / 양노쇠
진퇴	이 / 음이진	미 / 음미소	극 / 음극진	초 / 양초생	진 / 양진전	극 / 양극진
성질	동	증	윤	온	건	견
地	동	열	니	고	건	렬
病	동	종	유설●수폐부종	-	건	부
작용	동작적	주동적 열작용	성형적 생화	표화적 열작용	견성적수축	응결 수인 정지
위치	하	상	중	류	상	하
名	극	초	지	초	장(長)	장(壯)
月(陰)	진(辰, 3)	해(亥, 10)	자(子, 11)	술(戌, 9)	오(午, 5)	인(寅, 1)
본장부	간	심	비	삼초	대장	방광
중기	소	태	양	꺠	태	소
중기본장	심포	신	폐	담	위	소장